

崇義里滯雨

李賀

落莫誰家子，
 來感長安秋。
 壯年抱羈恨，
 夢泣生白頭。
 瘦馬秣敗草，
 雨沫飄寒溝。
 南宮古簾暗，
 濕景傳箛篳。
 家山遠千里，
 雲腳天東頭。
 憂眠枕劍匣，
 客帳夢封侯。

승의리 체우

이하

쓸쓸하구나, 어느 집 자식이기에
 돌아와 장안 가을을 느끼는가.
 한창 나이에 떠도는 나그네 되더니
 흰 머리 된 것 꿈에 보고 울었노라.
 여윈 말 시든 풀 먹이는데
 빗방울 차가운 도랑에 떨어진다.
 남쪽 궁전은 발을 드리운 듯 흐릿하고
 촉촉한 풍경 속, 때 알리는 종소리.
 고향 집은 천 리에 먼데
 구름은 동쪽머리 하늘에 드리웠구나.
 시름에 지쳐 칼 상자 베고 잠들면
 나그네 장막 안에서 제후되는 꿈이나 꾸려나.

